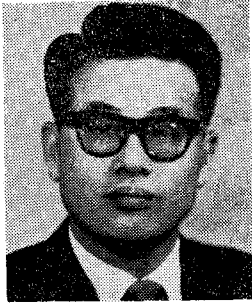


## 最近의 經濟措置와 食品工業



宋 基 徹

〈高大 商經大 教授〉

### ① 6·28 以前의 經濟

요사이 世上 돌아가는 모양을 지켜 보려면 꽤 뒤숭숭하고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명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도 우리는 經濟事態의 推移를 明確하게 豫測把握하고 그에 슬기롭게 對應하여 國家로서, 또 企業으로서, 그리고 個人으로서도 살아 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 繁榮을 해야 한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 經濟의 어려움이 오늘 어제에 시작된 것이 아닌 아주 옛부터의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있어서 어려움의 한 고비는 1979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國際적으로 볼 때에는 호메이니 波動으로 불리는 第2次 石油波動이 벌어져 기름은 얼마든지 있고 기름은 싸다는 石油文明社會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13弗의 기름이 35

弗로 22弗이나 경증 뛰다 보니 世界經濟는 萎縮과 激動을 거듭하면서 여러 衝激을 주게 되었다.

우리 經濟 역시 例外일 수 없다. 이 호메이니 波動으로 高油價에 따른 많은 衝激을 外部에서 받은 데에 대하여 國內의으론 10·26事態, 12·12事態로 政治的, 社會的, 心理的, 不安이 겹쳐 經濟의 어려움이 國內外的으로 겹쳐 加重하게 되었다.

80년에 들어와 申—李—金 經濟팀은 1·12措置를 斷行하였다. 緊縮과 換率引上, 金利引上으로 物價安定과 景氣活性化를 꾀했으나 政策意圖의 구현을 보지 못했었다. 이어 登場한 朴—金—李 經濟팀은 6·5措置를 斷行하였다.

緊縮을 약간 풀기 시작했고, 換率은 固定換率에서 流動換率로 바꾸고 大幅的 流動化를 시작하였다. 또 金利를 小幅的으로 引下하였으나, 時機的으로 늦었고 밖의 事態가 너무나 어마어마 했으며, 措置內容도 微溫的이어서 별로 큰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이어 登場한 南—申—李 經濟팀도 9·16, 9·

27, 11.8, 81年에도 이어 여러 經濟措置를 하였다. 緊縮의 약간의 緩和, 換率流動化, 小幅的인 金利引下가 있었으나 좀처럼 政策的 效果를 거두지 못하고 經濟沈滯는 계속되었다.

實物 經濟팀이란 劉一金一羅 經濟팀이 82年에 登場하게 되었다. 深刻한 經濟의 어려움을 풀기 위하여 1·14措置를 斷行하였다. 金利 1% 引下정도로 별로 效果가 없었다. 이에 金利 2% 引下를 主要骨子로 하는 3·28措置가 있었으나 별로 效果가 없었다.

## ② 6·28, 7·3措置

그러던 사이에 天下가 깜짝 놀랄 張女人事件이 터져 우리 經濟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輸出增大, 中小企業 融資擴大, 地方道路建設, 建築景氣 活性化를 主要骨子로 하는 5·18措置를 마련했으나 이것 역시 그다지 큰 效果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할 수 없다.

輸出增大는 換率의 實勢化를 政策手段으로 삼는 것으로서, 實質的으로 큰 도움을 주는 일이 되지 못한다. 中小企業 融資擴大도 말이 그렇지 實際로는 擔保物이 없어 콕콕 資金이 풀려 나가진 못했다.

地方道路建設을 위한 2千億원 放出도 時間이 걸리는 일이다. 建築景氣 活性化를 위한 登錄稅 引下, 讓渡所得稅 引下 등도 이런 政策手段으로 建築景氣 活性化를 期待할 수는 없었다.

이에 金一姜 經濟팀이 登場하여 6·28經濟措置가 나오게 되었다. 이 經濟措置는 10年前 8月 3일에 있었던 8·3措置와 거의 맞먹는 經

濟措置로서 金利의 大幅의 引下로 8%가 되었고, 法人稅率을 20%로 引下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銀行의 民營化 등이 內容으로 되어 있으나 金利大幅引下와 法人稅率 引下가 經濟骨子라 할 수 있다. 이것은 「企業이 살아야 經濟가 산다」는 基本思想에서 出發한 것으로 極度로 脆弱化한 企業의 財務構造를 強化시켜 國內外에 걸친 競爭力強化로 景氣를 活性化시키자는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본다면 企業에겐 가뭄에 단비를 뿌린 것과 같아서 굉장한 朗報임에 틀림이 없다. 또 法人稅率 引下로 이제 「企業은 망해도 企業人은 산다」는 것이 아니라 「企業人은 망해도 企業은 산다」는 式으로 組織을 살린다는 思考方式에 바탕을 둔 措置라 할 수 있다.

從前에는 法人稅率이 높은 데에다가 紙上配當稅率도 높고 거기에서 金利까지 높다 보니 企業財務構造는 엉망이 되었고 이를 是正하기 위한 한 措置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副作用도 적지 않다. 金利에 매달려 사는 老年 退職者라든가, 財政收入의 缺陷에 의한 財政赤字의 增加는 인플레이션으로 誘發할 수 있는 短點도 없지 않다.

5日후인 7月 3日에는 實名去來制, 綜合所得稅 實施, 所得稅率 引下를 主要骨子로 하는 措置를 發表한 바 있다. 이 措置는 景氣活性化에는 별로 보탬을 주지 않고, 차라리 阻害하는 措置이기도 하다. 理論的으로 볼 때에 妥當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 時期에 이런 內容으로 꼭 推進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선 적지 않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措置가 資金을 潛伏시키는 要因이 되지 않을까? 海外로 資金을 流出시키지 않을까? 貯

蓄意慾을沮喪치 않을까? 등등 綜合所得稅에 따른 여러 副作用이 優慮된다.

綜合所得稅 實施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선 實名去來制를 差等課稅로 定着시키고 分離課稅를 하되 稅率을 二次에 걸쳐 大幅 引上하고 綜合所得稅制로 誘導하는 漸進的 方向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6.28, 7.3措置는 연이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企業이나 個人 모두가 어떻게 方向을 잡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暗中摸索, 곰곰이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83年 6月 30日까지가 일단 우리 經濟政策의 重要한 調整期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이에 企業이나 個人 모두 事態推移를 銳意 把握 分析하여 새로운 戰略形成이 있어야 하겠다. 즉 環境豫測과 自社能力 評價를 통하여 새로운 目的을 設定하고 그에 適切히 對應할 수 있는 戰略마련이 要請된다는 뜻이다.

이제 不勞所得의 時代는 사라졌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또 低金利時代에 있기 때문에 企業으로 보아선 財務構造改善의 좋은 契機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組織은 살찌고 個人은 중전보다 더 살찌는 稅制로 들어 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부터는 더 어려워지는데 돈의 씹씹이는 그러지 않는 點에 留意하여야 하겠다.

### ③ 健實企業

82年度 能率協會가 施賞하는 韓國의 管理大

賞 制度가 있다. 筆者는 이 施賞의 審査委員長으로 參與하고 있어서 韓國企業의 實相을 엿볼 수 있는 機會를 가지고 있다. 82年의 韓國의 企業으로 大一化學이 審査되었는데 10位圈에 든 業體들의 特徵을 보면 우리 企業의 現住所를 대체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上場企業體 중에서 選定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上場企業의 財務諸表가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도 비교적 正確하기 때문이다. 이를 土臺로 收益性 150點, 安定性 100點, 成長性 50點등 300點을 滿點으로 삼고 있다. 이 評點基準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基準이 되고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하여간 이들 審査를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企業중 健全企業은 첫째 大企業이 아니고 中堅企業이 많다는 사실이다. 一般적으로 볼 때에 大企業이 항상 堅實한 것으로 느껴 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均衡이 잡히고 차임새가 있어서 健實한 企業이 大企業에 있다기 보다는 中堅企業에 많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는 輸出企業 즉 外需企業이 아니라 內需企業에 많았다는 事實이다. 물론 엄격하게 外需企業과 內需企業을 區別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거의 大部分의 企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外需市場에 혹은 內需市場에 쫓겨 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兩市場中 어느 쪽에 比重을 더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區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하여간 대체로 우리의 경우 景氣가 沈滯되어 있고, 또 輸出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대체로 內需企業 중에 健實企業이 많

았다는 事實이다. 이것은 氣景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경우 상당한 內需市場이 있고 또 外需企業도 內需市場을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企業經營을 해서 國際競爭力이 強化되고 企業體質이 強化된다는 利點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로는 重化學工業이 아닌 輕工業部門의 企業이 많았다는 事實이다. 重化學工業은 워낙 資金이 많이 必要하고 거기에다가 規模가 커서 상당한 量을 外需에 期待해야 하므로 企業經營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④ 食品工業의 앞날

이런 세가지 점에서 볼 때에 食品工業은 分明히 이들 세가지 長點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食品工業에 屬하는 企業이 大企業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 企業의 現實을 볼 때엔 中堅企業이 많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食品工業은 거의 全的으로 內需市場에 依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뜻에서 市場이 꽤 많이 存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기 때문에 競爭은 今後 더 苛烈化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또 食品工業 自體가 一種의 輕工業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企業의 參與가 늘어 날 餘地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6·28, 7·3措置를 계기로 우리 企業은 새로운 陳痛과 새로운 編成을 서두는 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食品工業이 지니는 必須性, 保健性, 內需性, 競爭性, 參與容易性等 여러 特性에 비추어 食品工業의 앞날은 밝지만 競爭은 더욱 苛烈化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經營戰略의 마련이 不可避한 것으로 생각된다.

6·28, 7·3措置중 이미 實施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않게 많으나, 아직도 實施되지 않고 明年 83年 7월에 가서나 實施될 것이 豫想된다. 아직 大體的인 方向만 마련되었지 그의 立法過程에 있어서는 많은 修正이 加해 질 것이 豫想되기 때문에 아직 무어라 이야기 할 수 없는 點이 있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6·28, 7·3措置의 推移가 一般經濟, 企業經營 그리고 家庭經濟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이며, 이들 三者間의 關係는 어떻게 展開될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關心을 갖고 지켜 보고 그에 대한 適切한 對應策 마련이 要請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